



책읽기가 교육의 본질,
학교도서관 살려야
문화도 산다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이상주

이상주 부총리는 책 얘기만 나오면 신명을 내는 사람 중의 하나다. 3개 대학에서 17년이나 총장을 했기에 '직업이 총장인 사람'이라는 얘기도 듣지만 정작 본인은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자격으로 학교도서관을 찾아다니는 것이 힘들고도 신나는 일이라고 말한다. 교육의 본질이 책 문화에서 비롯된다는 그의 철학을 엿보게 하는 대목이다.

“우리는 도서관을 으리으리하게 짓는 경향이 있는데, 도서관에 어떤 책이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읽을 만한 책이 많으면 사람들은 저절로 도서관을 찾는데, 비판적으로 보면, 우리네 도서관에는 내다버려야 할 책이 50퍼센트는 되지 싶습니다. 슈퍼마켓 가듯이 쉽게 드나들 수 있는 이웃 도서관neighbor library 개념이 도입돼야 합니다.”

<출판저널>을 애지중지 모으기도 했던 이 부총리는 책문화에 관한 한 아이디어 뱅크에 가깝다. 가족간에 책을 선물하는 문화를 만들자, 학생들에게 상을 줄 때는 도서생활권을 적극 활용하자, 어른과 아이들이 손잡고 도서관에 갈 수 있게 하자... 현실적인 대안까지 제시된 그의 정책들 때문에 교육인적자원부 공무원들 역시 덩달아 바쁘게 보인다. 그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책은 '좋은 학교도서관 만들기'다. 2007년까지의 밑그림을 완성하고 하나씩 집행해 나가고 있는 단계인데, 여기에는 이 부총리의 거시적 안목이 투영돼 있다.

학교도서관 정책이 잘 맞아떨어지면 일석오조의 효과가 있다는 게 그의 소신이다. ▷시민과 학생이 함께 도서관을 이용함으로써 가족 도서관 역할을 하고 ▷사서 채용률이 높아져 전문 인력의 취업률을 높일 수 있으며 ▷장서 확보율이 높아지면 출판계가 활성화되며 ▷학생들의 창의력이 높아져 문화 국가에 걸맞는 위상을 확립할 수 있고 ▷결과적으로 교육의 본질적 문제가 해결된다는 논리이다.

그는 이 시대에 책이 화두가 되어야 하는 점에 확신을 갖고 있다.

“작고한 미국의 로버트 허친스는 30대에 시카고대학 총장을 했는데 그가 처음 한 일이 미식축구팀을 없애는 거였습니다. 미국에서 미식축구팀을 없앤다는 것은 참 무모한 일인데, 그는 밀어붙였죠. 그러고는 Great Book Movement라는 책읽기 운동을 펼쳤습니다.”

이 부총리가 책에 관해 끔찍한 애정을 가지고 있는 데는 사연이 있다. 대학 다닐 때 전차 샀을 아끼기 위해 종로 5가 집에서 학교가 있는 제기동까지 걸어다니곤 했는데, 아낀 버스값으로 청계천 고서점을 뒤져 책을 사는 재미가 쏠쏠했다. 그런 탓인지 지금도 이사 때만 되면 책이 처치 곤란의 대상이 된다며 이 부총리는 과안대소했다.

어렸을 때부터 책읽는 문화를 가꿔야 한다는 생각에 그는 취임 이후 벽지의 초등학교를 많이 방문했다. 전남 신안의 암태초등학교를 비롯 강원도 양구·화천, 충북 청원 등의 초등학교를 찾았는데 그가 유난히 챙기는 것은 ‘책’이다. 도서관은 있는지, 책은 몇 권이나 되는지 꼼꼼히 살피고 책과 관련한 건의 사항은 가능하면 들어주려고 애쓰는 편이다. 초등학교 교사들이 장관 행차를 깔끄러워하지 않고 반기는 것도 쌍방향 대화가 되기 때문이다.

“성장기 학생들에게 지적인 경험을 확대시키고 인성함양을 도와 완전한 인격체가 되도록 하는 지름길은 뭐니뭐니해도 독서가 최고입니다. 2007년까지 3천억 원의 예산을 들여 모든 학교에 최소 수준이나마 도서관 환경을 가꿔주려고 합니다. 초·중등학교가 1만 개가 넘는데 지금도 20퍼센트 정도는 도서관이 없는 실정입니다.”

이 부총리의 구상은 11개 부처 장관이 참여하는 인적자원 개발회의에 안건으로 상정되고, 국장급으로 구성된 기획단에서 주요 내용에 대해 합의를 마친 상태여서 일종의 ‘계속사업’에 속한다. 문제는 사서 확보와 도서관 운영방식의 선진화인데 이 부총리는 사서 확보의 어려움을 학부모 사서 도우미, 계약직 사서 채용, 겸임사서 교사제 도입 등으로 해결한다는 방안을 세워놓고 있다. 사서 없는 도서관은 학생들의 자료열람실 역할을 하기에 급급할 것이라는 게 이 부총리의 생각이다.

이 부총리는 총장 재임 때나 지금이나 공무가 아닐 때는 손수 운전을 하는 사람으로 유명하다. 술 한잔이라도 걸쳤을 때는 ‘전속 기사’로 불리는 아내가 운전대를 잡는데 그래서인지 그에게서는 세상물정 모른다는 느낌이 들지 않는다. 학교도서관이라고 해서 인쇄매체 중심만을 고집할 게 아니라 전자매체 중심의 전자도서관과 균형을 이룬 ‘개방형으로 가야 한다’는 시각도 그래서 확보된 것이다. 학생들이 사이버 문화에 익숙해져 있는 만큼 학교도서관 정책도 그 흐름을 무시할 수 없다는 얘기다. 그 각론으로 그는, 권장도서 목록을 인터넷에 올린 다음 학교도서관이 미비치 도서와 비치 도서를 구별해 서비스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얘기까지 곁들인다.



“외국에는 서평에 지면을 대폭 할애하는 대학신문이 많습니다. 우리도 그런 시도를 해야 합니다. 그러자면 서평문화도 바뀌어야겠죠. 리뷰나 인터뷰도 얼마든지 좋은 읽을거리가 될 수 있고요. 신문의 북섹션 면이 자리잡아가고 있고, 방송에서 개성 있는 책 프로그램을 늘려가고 있는데 반가운 일입니다.”

이 부총리는 책 얘기라고 해서 반드시 무겁게 접근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일단 경계하는 편이다. 시간이 나면 ‘직업이 총장’이란 말에 걸맞게 ‘총장론’을 써 책으로 낼 계획인데, 이미 3분의1쯤 진행된 이 원고도 재미있게 써서 대학총장 자리의 빛과 그림자를 조명해 볼 참이다.

“취임할 때부터 새로운 일을 많이 벌이는 것보다 한가지 일이라도 확실하게 하고 가자고 다짐했습니다. 그게 책과 도서관 문제인데 큰 가닥을 잡았다고 자부합니다. 출판계에서도 장기적인 안목으로 학생들을 위한 기획 시리즈를 개발해야 합니다. 학교도서관 활성화 방안에는 학교 경상운영비의 3퍼센트 이상을 도서구입에 쓰도록 하는 내용이 있는데, 좋은 책을 만드는 출판사에는 희소식이죠.”

청와대 교육문화 수석비서관, 정신문화연구원장, 대학총장 등을 역임하는 동안 ‘교육행정의 달인’이라는 평가를 받은 이 부총리는 속간되는 <출판저널>이 학생들에게 많이 읽혔으면 좋겠다면서 루소의 《에밀》과 스웨덴 사회비평가 엘렌 케이의 《아동의 세기》를 자신의 정신에 영향을 끼친 책으로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출판**